Eugene's FICC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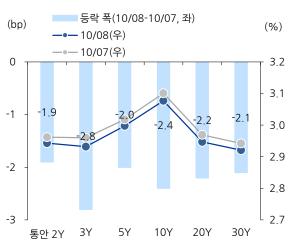

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10/9일	1D	1W	YTD	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32%	-2.8	10.6	-22.2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77%	-2.4	7.7	-10.6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4.5	14.1	17.4	2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7	7.0	-43.0	45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45	18.0	-76.0	95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22%	6.2	38.0	-22.9		
	미국채 10년물	4.074%	6.1	29.2	19.5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.3	5.4	14.1	-37.1		
	독일국채 10년물	2.258%	1.3	16.5	25.4		
	호주국채 10년물	4.166%	2.1	18.2	21.2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미 고용 충격 여파 이어지며 장 초반 약세.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세는 장 중 지속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 을 가중하였음
- 오후 중 WGBI 편입 기대로 기관 매수세 유입되며 금리 상승폭 제한. 아시아장 중 미국채 강세 보인 점도 우호 적으로 작용. 장 후반 강세폭 확대하며 마감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 FOMC 의사록 소화
- 9월 FOMC 의사록, 빅컷 두고 연준 내 의견 갈린 점 부 각되며 전구간 금리 상승. 댈러스 연은 총재, 향후 점진 적 금리 인하가 적절함을 강조
- 국제유가 하락으로 금리 상단은 제한. 헤즈볼라, 이스라 엘과 휴전할 의향을 밝힌 까닭. 미 원유재고 증가한 점 도 영향
- 금일 미국 9월 CPI, 일본 9월 PPI 등 발표.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8	FX & Commodity					
		10/9일	1D	1W	YTD	
흰율	원/달러	1,349.70	0.2%	2.4%	4.8%	
	달러지수	102.90	0.4%	1.2%	1.6%	
	달러/유로	1.094	-0.4%	-1.0%	-1.0%	
	위안/달러(역외)	7.09	0.3%	0.8%	-0.5%	
	엔/달러	149.30	0.7%	1.9%	6.0%	
	달러/파운드	1.307	-0.2%	-1.5%	2.7%	
	헤알/달러	5.60	1.1%	2.8%	15.3%	
상품	WTI 근월물(\$)	73.24	-0.4%	4.5%	2.2%	
	금 현물(\$)	2,607.66	-0.5%	-1.9%	26.4%	
	구리 3개월물(\$)	9,675.00	-0.7%	-4.1%	13.0%	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00원 상승한 1,349.70원에 마감.
- 달러-원은 전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 출발해 강 초반 보 합권에서 등락했으나, 오전 중 발표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급등. 장중 1,350원 돌파.
- 네고 물량 유입으로 반락한 이후에도 역외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탄력은 유지.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FOMC 의사록 소화하며 상승.
- 당초 9월 회의 결과에서 한 명의 위원이 25bp 인하를 지지했던 것과 달리 9월 FOMC 회의록에서 몇몇(a few) 위원들이 25bp 인하를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 견인. 이들은 정상화의 전반적인 경로가첫 금리 인하 폭보다 중요하다고 언급.
- 한편 연휴간 한국은 WGBI 편입에 성공. 중국 국무원은 오는 12일 재정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.
- 국제유가는 헤즈볼라의 무조건 휴전 제안과 미국 허리 케인 우려 등에 이틀 연속 하락.